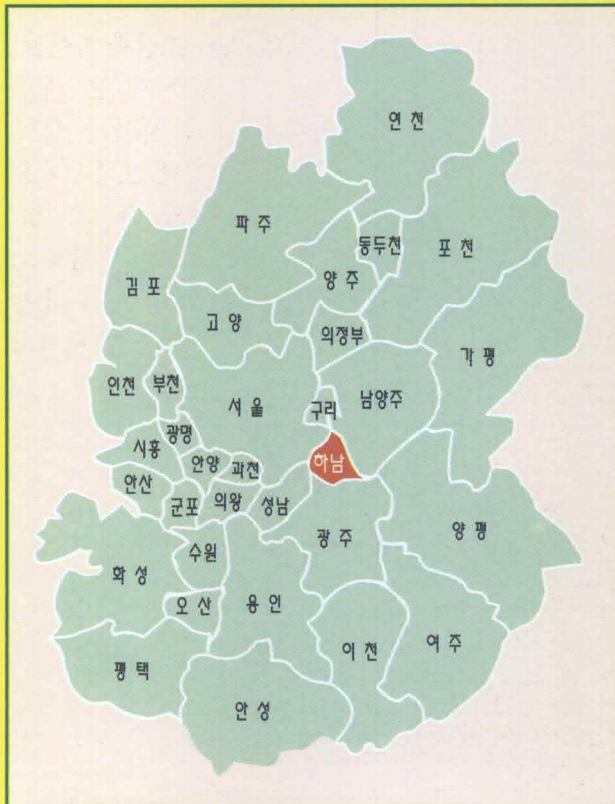


하남시

초동목도 싸움

지경다지기



초동목도 (樵童木道) 싸움

1. 전승지

하남시 초동 마을

2. 유래 및 해설

1) 유래

과거의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

고 그것이 긴 시간동안 반복되면서 하나의 놀이로 정착한 습속을 가르켜 우리는 전통민속놀이 혹은 전승민속 놀이라 한다.

하남시는 서울과 접한 판 시군과는 달리 백제의 옛 고도답게 많은 유·무형의 민속이 산재해 있는 전승문화의 보고지역이다. 남한산이나 금암산등 산아래 취락을 이루고 있는 동리에서는 인근에 있는 산에 올라 땀감을 해다가 한양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곳이다. 산으로 오르는 길이 좁고 가파라서 많은 인원이 함께 나무를 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자연 나뭇길(木道)을 사용하는 권리를 차지함은 물론 기싸움에서 이기는 것으로 풍년과 동리의 안녕이 함께 보장된다는 무속적 사고까지 곁들여졌다. 연초에 대대적으로 행사를 목도싸움이 벌어졌는데 대개는 동리의 소년들이 모여서 기뻛기를 한 것으로 중단된 지 60여년만에 옛모습으로 다시 재현된 것이다.

3. 줄거리

1) 길놀이

동서부의 부락기를 선두로 초동대기, 농기, 영기와 농악대 목두꾼 잡부의 순으로 작업장을 향하는 과정으로 농악대의 길군악 장단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길놀이를 한다.

2) 목도소리(작업)

길놀이를 하면서 동·서부가 갈라져서 각기 작업장에 도착하면 선소리꾼의 목도소리 선창에 이어 목두꾼들이 뒷소리를 받으면서 나무를 켜기도 하고 나무를 도끼로 쪼개는 시늉을 하기도 하면서 작업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장습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작업을 마무리 지으면 농악의 장단에 맞추어서 지게 위에다 나무를 엮고 끈으로 단단하게 잡아 묶어 놓는다.

■ 목도소리사설

배김소리

울라리 밑에서 꿀베는 총각
눈치나 있거든 떡 받아먹게.

받는소리

아리라루 아리라루 아리리요
아리라루 고개로 넘어간다.

배김소리

떡일랑 받아서 다 팽개치고
지게를 지고서 어디로 가나

받는소리 ,

아리라루 아리라루 아리리요
아리라루 고개로 넘어간다.

배김소리

남한산 올라가 땀감을 해다가
한양성 들어가 장사나 할까.

받는소리

아리라루 아리라루 아리리요
아리라루 고개로 넘어간다.

3) 기싸움

나무를 지게에 엮고 정리가 끝나면 동부의 상쇠가 먼저 길을 이용한다고 소리친다. 서부에서도 먼저 길을 이용해 하산하겠다고 함성을 지르다가 기싸움으로 승부를 가르자고 하면, 서로 삼채와 잣은 가락에 맞추어서 초동대기의 주위를 돌다가 기를 뺏을라고 소리치고 함성을 지른다. 이때 부락기와 영기까지 합세해서 상대방의 초동대기에 달려들어 기의 상단에 꽃혀있는 평장목을 뽑게 되는데 일부는 자신의 부락 초동대기를 지킨다. 한편이 먼저 평장목을 뽑으면 그편에서는 환호하고 진편에서는 땅에 주저앉아 분해한다.

4) 뒤풀이

기싸움이 끝나고 나면 승편에 관계없이 동·서부가 한데 어우러져서 뒤풀이를 펼치는데 이 뒤풀이는 우리 전승민속의 마당놀이

가 갖는 특징으로 이 뒷풀이의 한마당 어우러짐 속에서 우리는 대동 단결의 공동체적인 의식과 이웃사랑은 물론 경신과 경노효친의 모체가 된 것이다. 이러한 놀이 마당을 잃은 이시대에는 서구 문물의 무절제한 영입으로 모든 사람들이 물질만능과 이기주의에 젖어있어 조상 대대로 전해진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공동체적인 삶을 잊었으며 이 전승민속 놀이의 단절이라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 상기의 편성은 한부락이므로 실제의 연회인원은 100명이된다.

4. 구 성

- 고 증

하주성 : 민속학자, 경기도문화재의원

- 지 도

최용신 : 하남고, 음악교사

신사용 : 하남고, 학생과장

- 인원구성

하남고교 목도싸움팀 100명

- 인원편성

배역	인원
부락기	1
소동대기	1(2)
농기	2
영기	4
쇠	2
징	1
북	3
장고	3
목도꾼	20
잡부	11
계	50

지경다지기

1. 전승지

하남시 상사창동 고골마을 일대

2. 유래 및 예설

지경다지기란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성민속(作業性民俗)놀이로서 놀이라기 보다

는 인구가 늘고 가옥이 필요하게 되면 필연적(必然的)으로 나타나는 작업으로, 대부분의 지반이 약한 강가나 해변지역에서는 수십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지경다지기란 집터를 단단하게 하는 작업이지만, 집터를 건드림으로써 토지신의 노여움을 막아 사전에 닥칠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으며, 또한 단



순히 기계화된 작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선소리꾼의 소리를 받으며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 복합적인 형태의 민속유희(民俗遊戱)로서, 지경다지기에서 나타나는 지경요(地硬謠)는 무경의 명단경이나 지주경의 제패풀이 등에 자주 인용되고 있어 그 문화적 가치가 높다.

특히 지경다지기는 하남시의 대표적 전통 민속놀이중 하나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골일대에서만 전승되어 오고 있다.

3. 구성 및 줄거리

1) 대주고사(垔主告祀)

지경을 다진후의 평안을 축원(祝願)하는 의미로 지경 다질 터의 한쪽에 고사상을 차려놓고 집주인이 나와 대주신(垔主神)에게 고사를 지낸다.

2) 지경(地硬)다지기

대주고사가 끝나면 지경석(地硬石)을 중앙에 놓고 지경 다지는 후군(後君)들이 모여서 지경줄을 당기면서 지경요(地硬謠)의 소리에 맞추어 지경을 다진다.

3) 놀이

지경다지기를 한차례 끝낸후 주인이 마련한 술과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쉰다.

4) 지경다지기

휴식을 취한 사람들을 다시 지경다지기를 계속한다.

4. 고 증

- 고 증 양윤석
- 지 도 김종규



경 제13회 시민의 날 축제

우리는 한마음 한데뭉쳐 한길로 힘자게 전진하자